하이테크엔지니어링(주) 회사전경

열린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앞서나가는 기업

하이테크엔지니어링(주)

전남지역에서 알찬 중소기업으로 알려진 하이테크엔지니어링(주). 하이테크엔지니어링(주)는 전남 여수에 본사가 위치한 회사로 석유화학 플랜트 종합설계와 컨설팅, 에너지(ESCO)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이다. 지역에서 많은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상하며 전남지역의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하이테크엔지니어링(주)를 만나본다. 글 편집팀

사회와 소통하는 기업

하이테크엔지니어링은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 서울, 대산, 울산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200여명의 임직원(공정, 기계, 배관, 전기, 계기, 토목, 건축 등의 엔지니어 162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2001년 3D CAD 시스템 도입, 2005년 플랜트 업체 최초로 3D Laser Scan 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으로 기존 공장의 Revamping 프로젝트에 특화된 노하우를 제공하여 원가절감과 안전시공에 기여하고 있다.

> 하이테크엔지니어링은 핵심인력에
>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기업으로
> 장기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 운영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ESCO사업은 2008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등록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는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인 정유, 석유화학공장의 에너지절약 전담 추진팀과 2000년 초반부터 관련업무를 수행하며 직·간접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또한 관련회사들과 에너지절약사업 외에도 다양한 공정개선 사업 등에 이미 참여하고 있어 각 분야의 핵심인력을 보유한 저희 회사로서는 사업분야의 일부인 ESCO 사업에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테크엔지니어링(주) 장 영 대표는 ESCO 사업에 진출한 계기로 또 하나의 도약을 준비하고자 하는 열정과 도전정신에 있다고 강조하며 차근차근 ESCO사업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 왔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말대로 하이테크엔지니어링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과감하고 끊임없이 실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핵심인력에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기업으로 장기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하이테크엔지니어링은 고객과 기업 및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산학협력 체결을 통한 대학 육성사업과 각종 공사와 파트너쉽 및 업무협약을 통한 상호 발전,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목표로 사회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더욱 발돋움하고 있다.

직원을 배려하는 기업문화

열정이 있는 인재들이 모이면 반드시 혁신을 이루어낸다. 하이테크엔지니어링은 그러한 인재들을 길러내고, 엔지니어링의 핵심 요소는 인재라는 생각으로 직원들을 대한다.

"ESCO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 ESCO사업자 스스로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가치관과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이테크엔지니어링(주) 장 영 대표이사

그 때문일까. 하이테크엔지니어링은 이직률이 5%일 만큼 직원들의 애사심이 높은 기업이다. 많은 직원들이 국내외 세미나와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 다양한 교육을 접하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다.

GS칼텍스, 한화케미칼, S-OIL,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등 내노라하는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것도 기술력으로 무장한 인적자원 덕분이다. 하이테크 직원들은 한 부서에서 붙박이로 일하는 경우가 드물다. 자유롭고 능동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는 취지 아래 '부서 순환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국내외의 정유, 석유화학 공장의 신·증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인력을 스카우트하기보다는 자체적인 기술인력 양성에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으며, 공장증설에 이어지는 공정최적화, 에너지절약 사업에서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 영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재양성'이다. 이러한 회사의 노력은 가장 까다로웠던 ESCO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큰 실적으로 다가왔다.

"2009년도에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의 화학 공장에 MVR SYSTEM(12t/hr, 절감금액 21.3억/year) 도입 프로젝트가 ESCO프로젝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MVR SYSTEM을 외국 기업에서 도입하지 않고, 국내 업체와 협력하여 제작하기로 결정하여 진행하였으나, MVR의 운전조건이 음압(대기압이하)증기를 재 압축하는 CONDITION 이었기 때문에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집념과 노력으로 힘든 과정을 훌륭히 극복하여 왔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하이테크엔지니어링은 사옥에도 남다른 신경을 써 여수시의 아름다운 건물로 선정되기

도 했다. 중소기업이지만 직원들의 복지는 대기업 못지 않은 것도 하이테크엔지니어링의 사람을 우선시하는 기업문화에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기업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은 전국민이 인식하고 있는데 이를 실행해야 하는 주체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장 영 대표는 ESCO활성화 방안으로 ESCO사업자의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ESCO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 ESCO사업자 스스로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가치관과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익창출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지만 가치관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주변의 수많은 기업들이 짧은 생을 마감하는 과정을 보았듯이 당장의 이익에 매달리기 보다는 조금 멀리보고 회사를 운영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와 유관기관의 정책적인 지원이 수반 된다면 ESCO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장 영 대표는 2011년의 성과는 지역을 극복하고 전국의 정유, 석유화학공장에 진출하여 회사의 역량을 확인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항상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하이테크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쫓아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하이테크엔지니어링의 기본 정신이 있기에 앞으로도 하이테크엔지니어링은 인재가 끊이지 않는 기업,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